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포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 (엡4:13)

⊗ 생활지침 ⊗

- 섬기는 생활
- 주는 생활
-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1996년도 우리교회 주요 행사 일정

더욱 성숙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내실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들

올해의 포어를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로,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을 행동강령으로 정한 우리교회는 질적으로 더욱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매 주일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방법으로 드림은 물론, 절기에매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여 주님의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성숙한 신자가 될 것을 다짐하게 된다.

각종 수련회와 세미나를 통해 영적인 성숙을 도모할 것이며 ‘홍해작전’, ‘비전 2000운동’ 등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들도 좀더 발전적인 기획과 실제적인 운영으로써 내실을 기할 것이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을 통해 계속해 온 전국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3월과 9월에 제 9학기와 10학기가 각각 개강하여 매 주 월요일 10주간 계속될 것이며, ‘100교회운동’으로 결연한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를 초청하여 농어촌 목회자신학세미나도 개최한다. 또한 5월 중 스칸디나비아의 목회자를 초청하여 제7차 김치(KIMCHI)신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6월에 열리며 파택된 장로는 교육을 받은 후 교회설립 5주년 기념일인 11월 24일에 장립을 받게 된다.

평신도의 성경지식 습득을 돕기 위해 ‘주간 성경공부’를 매 주 배부하며, 주간성경학교도 신설할 예정이다.

5월 중에는 경로대학을 신설하여 변천하는 사회 속에서 노년기에 오는 허탈감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도우며 평생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존경받는 크리스찬상을 정립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복음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매 달 새가족환영회를 통해 새가족의 신앙생활과 교회적응을 도우며, 학습·세례식을 격월로 거행한다.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 우리는 역사

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감격을 가지고 복음 속에 담긴 사도적 사명과 예언자적 비판의식을 바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사를 통해서 ‘천국일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라는 우리교회의 목표를 잘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개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의 기회가 되고 교회 중심의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6년도 월별 주요 행사 일정

1월	· 5일 / 신년수련회	7월	· 7일 / 백추감사절(성찬식)
	· 7일 / 신년감사예배(성찬식)		· 농어촌 전도대 파송
2월	· 7일 / 공동의회(예·결산 심의의 건)	8월	· 교회학교별 여름수련회, 여름성경학교
	· 7일 / 순결서약식		· 하반기 장학금수여식
	· 7일 ~ 15일 / 청지기수련회	9월	· 2일 / 제 1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11월 11일까지 매 주 월요일)
	· 2월		· 교회학교별 겨울수련회, 겨울성경학교
· 상반기 장학금수여식	10월	· 8일 / 비전 2000운동 시작 (11월 24일까지 50일간)	
3월		· 9월 /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집례	
· 25일 / 제 9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개강 (5월 27일까지 매 주 월요일)	11월	· 24일 / 추수감사절 (성찬식)	
· 25일 / 농어촌목회자 초청 신학세미나		· 24일 / 교회설립 5주년	
4월	· 7일 / 부활절 예배(성찬식)	· 24일 / 선교사 파송식	
5월	· 21일 / 제 7차 김치(KIMCHI) 신학세미나 (5월 31일까지 10일간)	12월	· 1일 / 제직 및 교구일꾼 임명식
	· 6월		· 8일, 11일 / 찬양대원 임명식
· 6월	· 26일 / 공동의회(장로선거의 건)	· 15일 /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	
· 6일 / 홍해작전 개전(23일까지 18일간)	· 6월	· 24일 / 성탄축하의 밤	
· 6일 / 교회당 건축 기공예배		· 25일 / 성탄절	

중·고등부 수련회

1월 25일(목) ~ 27일(토), 2박 3일간

“성숙한 기독교학생” 주제로 양수리수양관에서

중·고등부의 겨울수련회가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2박 3일간 양수리기도원(경기도 양평군 소재)에서 열린다. ‘성숙한 기독교학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의 강사는 중등부는 박귀환 목사, 고등부는 김명현 목사이다.

방학을 이용하여 말씀과 기도로 집중적인 신앙훈련을 하는 수련회 및 어린이 겨울성경학교는 두 부서의 수련회를 시작으로 1, 2월 중에 교회학교별로 개최된다.

미 2사단 군목단 초청

1월 30일(화) 오후 7시 위로잔치

3월에는 카투스 순결서약식도

선교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에서는 오는 30일(화) 오후 7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질서를 위해 조국을 떠나 우리나라에 와서 수고하고 있는 미 2사단 소속 군목 20명을 초청, 위로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미 2사단에서는 우리교회에 부대 소속 카투스들에게 순결서약식을 실시해 줄 것을 청원해 왔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나희주 장로)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3월 중에 미 2사단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순결서약식을 주관하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창세기
감해



하나님의 사람 요셉

(37장 1 - 2절)

이종운 목사

창세기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 심판 등 인간 종족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12장에서 36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37장 이후는 주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환경에 적응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고 유대인의 부유한 가정의 상속자로 성장하다가 이방인의 노예로 팔려가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결국 애굽 바로왕국의 총리로까지 등극하였습니다. 사랑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했으며 시험도 받고 신뢰도 받았으며 높임을 받는가 하면 버림도 받았던 파란만장한 일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110년간의 생애 중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의지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번영이 그의 인격을 파산시키지 못했습니다. 공인으로서나 사인으로서나 일관된 삶을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는 동등하게 1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나쁜 짓을 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요셉의 악은 겉으로 표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약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비해 요셉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의 모형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입니다. 이삭은 아들로써 순종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많은 점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성경의 주석가 프란츠 델리치는 요셉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노예에서 자유자로, 고난에서 영광으로의 삶을 살므로써 그리스도의 생애의 단편을 보여주었다고 주석하였습니다. 피터 랑게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팔려갔으나 그의 꿈이 실현되어 그의 고난을 통해 많은 형제를 구원하게 된 것에서 그리스도와의 유사성을 찾고 사랑과 용서와 승리, 야

곱의 재회 등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판세'의 저자 파스칼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죄가 없었음에도 노예로 온 20에 팔렸으며 그 일로 형들의 구원주가 된 것이 예수님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죄수와 있었던 것과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 그들 중 하나가 구원받은 것과 요셉이 자기를 기억한 죄수를 구원한 것을 비교했습니다.

2. 성도의 모델

요셉은 경건한 신자의 모델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견고히 믿었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심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여덟가지 신앙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믿은 첫번째 사람으로 그를 통해 신앙의 성격이 설명됩니다. 메시아 구원 사역에 관한 믿을 수 없는 말을 믿은 것입니다(창3:15, 20).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히11:4). 하나님께서 피흘림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믿은 아벨의 신앙으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써 믿음으로 걷는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창5:21 - 24). 노아는 방주를 지어 큰 홍수에서 여덟 식구를 구원하였습니다. 조롱과 핍박을 견디고 120년간 방주를 만든 그의 신앙은 성도의 견인(堅忍)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신앙의 순종적 성격을 설명해 줍니다(창22:1 - 18).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굽힘으로써 신앙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수년간 자기 길을 갔으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셨고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그의 일생을 통해 신앙의 훈련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창32:24 - 29). 노예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신앙의 승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히 드셨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요셉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 타향에 있을 때, 가족과 친지가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요셉은 하

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셨고 항상 그의 삶을 주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셉을 공부하면서 질투를 극복해야 할 때, 역경을 만날 때, 성적 유혹을 당할 때, 미래 계획을 설계할 때, 자기를 해한 이를 용서해야 할 때 각각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손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롬8:28)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통해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7년간의 기근 동안 많은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보디발 집의 종이 된 일, 감옥에 간 일,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된 일 등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 그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승리하였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 순례자 컬럼 ✦

"비빔밥 인생"

전주의 비빔밥은 그 맛이 일품이다. 어떤이의 말에 의하면 35가지의 재료가 배합되어 새로운 맛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이같이 수많은 종류의 요인들이 종합해서 하나의 인격체로 나타나는 것일 게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야성이 그것이다. 강인한 동물성을 갖고 투지와 인내력, 그리고 벌판에서 자란 야생초처럼 끈질긴 생명력이 모험심과 도전성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인간은 야성만으로 살 수 없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지성이 있다. 발명과 비판을 통한 힘으로서의 지성은 위대하다. 거기에 도덕성과 영성이 배합되어야 인간은 그 맛을 제대로 낼 수 있게 된다. 지성 없는 야성, 덕성 없는 지성, 그리고 영성 없는 도덕성은 모두가 절름발이 인생만을 낳을 것이다.

서로 다른 재료가 합쳐져 새 맛을 내듯 모든 것을 수용하되 자기 맛을 낼 줄 아는 맛있는 삶을 창조해 보자.

■ 순결서약을 마치고

“미스터 신부(新婦)”

오윤걸 (대학부)

“육체와 마음의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예쁜 반지까지 받고 서약을 마쳤다. 하지만 혼수품은 고사하고 등불을 밝힐 기름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있는 나에게 우리의 멋쟁이 신랑이 하는 말, “첫날밤은 절 혼하고 보내는 거야.” 맞다. 난 약혼한 것이었지.

▼ 지난 주일 찬양예배시, 100명의 청소년이 순결서약을 하였다.



항상 나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상한 마음을 감싸주고,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 주는 최고의 신랑과 나는 약혼했다. 혼수는 필요없단다. 그저 마음의 등불에 기름만 준비해 놓으면 된단다.

신랑을 알게 된 후 마음 속에 그치지 않는 기름샘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어찌 깨끗하지만은 않다. 불을 붙여 보아도 불빛이 시원찮고... 아마도 '세상'이란 놈의 짓인가 보다. 아니,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허물 때문인지도 모른다. 난 약혼한 몸인데, 맑고 투명한 기름을 준비하기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세상의 울무에 걸려 들기 일쑤고 마음의 기름은 점점 탁해져만 가고... 그래도 신랑은 용서를 해 준단다.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깨끗하게 지킬 힘과 용기도 더불어 주시겠단다.

최근 군생활을 마감한 나로서는 혼전순결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안일해졌는가 하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일이다. 그러나 순결서약을 하는 것은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윤리적 차원의 약속으로 그치는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는 신부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대한 서약이라고 생각한다.

'순결' 이라고 새겨진 반지를 다시금 들여다 본다. 난생 처음 껌 반지가 어색하고 아직도 내 것 같지가 않다. 신랑의 사랑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도 같고... 완전한 아내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해야겠다. 신랑 앞에 서는 날, 마음의 등불을 찬란히 밝힐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죽기까지 했던 신랑의 사랑을 생각하면 외로움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 강남노회 연합 신년수련회를 마치고

“우리는 한 지체”

채항석 (집사, 1교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은 부끄럽기만 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주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리라는 결심으로 시작하였다. 지난 5일, 햇불선교센터에서 있었던 강남노회 연합 신년수련회는 이러한 나의 결심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수련회장에 도착한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건물을 보며 우리교회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남노회에 소속한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말씀의 은혜에 젖어들 때 우리는 몸 되신 주님의 지체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하였다.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매 주 북한동포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의 초석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써 다져가야 함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회개의 촉구와 함께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교회를 향해 닥쳐오는 많은 도전에 대해 한 몸된 교회관을 가지고 연합함으로써 응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나, 내 가정, 내 교회를 넘어 이웃과 이웃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로 우리 기도의 폭이 점차 넓어져 가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고 초대교인들처럼 나누는 삶을 실천하여 참된 교회상을 정립하는 일도 시급함을 깨닫게 되었다.

신년수련회를 통하여 한 몸의 지체로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 다락방 순례 - 논현 1다락방

어린이가 더 많은 다락방

어른 한 명에 두 명 이상의 어린이가 참석하는 논현 1다락방. 금주엔 세번째 아이를 출산하여 몸조리 중인 가정과 유치원 다니는 몇 어린이가 못 왔지만 이들이 다 모이는 논현 1다락방은 항상 '놀이방'을 방불케 한다. (여기에 오는 4월에 또 한 식구가 늘어날 예정이다.) 다락방 모임을 통해 탁아부나 유치부에서 배운 찬송으로 어른들도 어린이들과 하나가 되고, 아이들은 간식이 나오면 모두 모여 기도하기까지 기다리는 공동체 예절도 배운다.

“한파와 폭염을 아랑곳 하지 않고 일년 내내 빠짐없이 다락방 모임을 가지다보니 아이들끼리는 물론이고 어른들도 이제는 매주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지요” 다락방장(한정아 집사)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치원생 이하의 자녀를 둔 젊은 엄마(?)들이어서 더욱 친밀감을 갖게 되었다는 한 회원의 말이다. 이 다락방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락방 식구 중 아무도 직분을 받지 않았었는데

몇 년이 지나는 사이 이제는 모두 집사가 되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교회 일의 많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그러나 아이들이 키와 지체가 자라나듯 다락방 식구들 믿음도 쑥쑥 자라 머지 않아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해 달라는 것이 모두의 간절한 기도제목이다.



■ 소식

필그림예술선교단 창단

매 주 찬양예배 후 정기모임 갖기로

지난 8일(월) 2층 예배실에서 필그림예술선교단 창단예배를 드렸다. 1월 16일(화)인도 순회공연 출발을 위한 예배를 겸하여 드린 것이다. 필그림예술선교단은 매월 지방공연과 연 2회 해외순회공연, 교회행사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다. 필그림선교단의 정기모임은 매주 찬양예배 후 사랑부실에서 가지는데 이 모임에서는 수화찬양도 배울 수 있다. 선교단에 관심있는 성도는 누구나 입단할 수 있다.

당회원 신년하례회

16일(월) 오후 가족과 함께

우리교회 당회원들은 신년하례회를 16일(화)에 갖기로 했다. 이 모임은 이종윤 목사 내외의 초청을 받아 당회원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가기에 본이 되고자하는 당회원들의 교회를 향한 새로운 다짐과 각오의 장이 될 것이다.

<순례자>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순례자>는 항상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 김명현 목사(출판국 지도)
 전화: 517 - 7651(교회), 팩스: 512 - 1225, 516 - 9641
 좀더 나은 편집을 위해 모든 원고는 목요일에 마감합니다.

1996년도 전도위원회

지 도 이순환 목사 위 원 장 김태기 장로
 서 기 김영준 집사 회 계 김금준 집사
 남선교회 임원 각 지회 회장, 부회장

부서	제1지회	제2지회	제3지회	제4지회	제5지회	제6지회	간사
요한	회장 구동철 부회장 황재복	김금준 최차순	박정인 이구연	안인호 유형석	김춘민 이종호	이양철 김재우	이 양 철
베드로	회장 허상한 부회장 양영오	김세재 김규태	이계홍 이종형	박두호 조정식	이남성 권장환	최재규 임상헌	허 상 한
바울	회장 나종영 부회장 임옥균	오형철 임훈규	송의웅 장양일	김영준 윤운식	권장철 이기곤	김형택 홍성주	오 형 철
모세	회장 부회장			김일용 이상운			

여전도회 임원 각 지회 회장, 부회장

부서	제1지회	제2지회	제3지회	제4지회	제5지회	제6지회	간사
마리아	회장 금용숙 부회장 서희자	김정란 이현주	이혜선 성수영	이명신 박진희	금미선 김미혜	하 숙 이지은	김 정 란
루디아	회장 이연숙 부회장 이영희	신동기 장동남	최미아 김희숙	이영숙 남영주	윤영신 이순영	김남순 이옥희	이 연 숙
에스더	회장 이순례 부회장 최무순	정봉금 홍재식	손재겸 이중자	이부자 임순자	김영연 최정자	이인선 전정순	김 영 연
한나	회장 부회장	전인화 김경희			김종자 백영희		김 경 희

■ 목회자·교우 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11일(목), 서울여대 이사회, 15일(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준비위원회, 16일(화) 연세 동문목회자수련회, 18일(목) 한국기독교상담문화연구원 이사회, 19일(금) 로잔 한국위원회 등에 각각 참여.
- * 신순우 집사(11교구)는 12일(금) 농수산부 차관보급으로 승진하여 국립 농수산물 검사소장으로 발령.

■ 김동무

먼저 온 자, 먼저 나가기... 웃으면서
 ○... 새 해부터 달라지는 것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예배를 마친 후 퇴장하는 순서이다. 작년까지는 뒤에 앉은 사람부터 퇴장했기 때문에 일찍 와서 앞에 앉은 사람이 더 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기도송이 끝나면 앞줄부터 퇴장한다. 이는 일찍 온 사람에게 먼저 나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 외에도 모든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잊지 말자. 이제부터 퇴장은 앞줄부터라는 것!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모든 사람과 웃으며 인사하는 일!

늦게 온 산타클로스

○... 새 해가 밝았는데 뒤늦게 산타클로스가 찾아왔다. 연말 복잡한 시내 교통 사정 때문일까, 아니면 너무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이라 운반이 더뎠던 것일까?
 여하튼 이종윤 목사님은 이를 즉시 거절하셨다. 개인에게 주는 선물이지만 목사님께 드리는 것이 뇌물성일리는 없고 분명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드리는 것일 텐데도 말이다. 그 사랑과 성의를 왜 무참히 거절하셨는지 슬쩍 여쭙었더니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려는 때에 새 차를 탈 수는 없지 않느냐?"며 도리어 반문하시는 목사님. 교회당이 며칠 내로 완공되는 것도 아닌데 더 많은 일을 위해 활용하시는 것이 덕이 되는 일 아니실런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동성있게 감당하시라는 뜻만 살짝 밝힌 채 새 승용차 한 대를 물고와 열쇠를 전하고서는 잠적해 버린 주인공은 누구일까? 우리교회 성도가 아니라 소문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신 말씀처럼 주의 종을 대접한 가정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넘치기를...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애**」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성숙한 신자,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 우리교회의 일년 행사를 은혜 중에 진행할 수 있도록
3. 전도회 임원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기를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